

<要約>

I. 韓國 經濟의 現位相

- (最近 經濟 動向) 국내 경제는 景氣 循環上 95년에도 景氣 擴張勢가 이어질 전망이다.
 - 그러나 95년에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커지는 '景氣 擴張 局面의 後半期'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 (國內 經濟의 現位相) 한국 경제는 光復 이후 量的 高度 成長을 지속하여 국내 총생산액과 교역액이 OECD 회원국들의 中間 國家 그룹군에 근접한 상태임.
 - 하지만 1人當 GDP면에서 OECD 회원국 平均을 크게 밑돌고 있으며, 國際收支 段階上으로는 '未成熟 債務國' 수준에 머물러 있음.
- (先進化 課題) 한국 경제의 先進化 課題는 1) 高費用 經濟 體質 改善, 2) 成長 構造의 脆弱性 補完, 3) 經常收支 黑字 基調 定着, 4) 國民 福祉 水準 向上임.

II. 經濟 環境 變化

- (經濟 環境 變化) 21 世紀까지 남은 5 年 동안 國內外 經濟 環境의 變化 速度와 內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廣範圍할 것임.
 - 主要 變化 內容은 世界化·情報化·自由化·地方化·統一 經濟化임.
- (波及 效果) 파급 효과의 主內容은 '無限 競爭', '創意力 重視', '可變性 增大'임.
 - 궁극적으로 국내 경제는 小規模 完全 開放 經濟 體制로 변모할 것이며, 경제 관련 法·制度·慣行이 빠른 속도로 先進化될 것임.

III. 새로운 政策 方向

- (政策 焦點) 95년은 '世界化 時代 元年'으로서 新 政策 理念을 설정하고 新 政策 目標(New Vision)를 제시하여 經濟·社會 분위기를 一新하고 國力을 再結集해야 함.
- (政策 理念) 新 政策 理念은 開發 時代처럼 盲目的 外形 成長만을 추구하는 "物神主義"가 아닌 人間의 精神的·物質的 삶을 풍요롭게 하는 "新人本主義"여야 함.
- (政策 目標) 新 政策 目標은 '先進 經濟' 社會를 달성하여 96년 OECD 加入, 2,000년 까지 上位 先進 經濟圈 進入을 이루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 우선적으로 1) 政府 役割이 再調整되고, 2) 경제 주체들의 意識이 革新되어야 함.
- (政策 課題) 政策 目標 達成을 위한 中短期 政策 課題는 1) 經濟 安定 體質 定着, 2) 成長 潛在力 擴充, 3) 國民 福祉 向上, 4) 統一 經濟 基盤 確立임.

IV. 結言

- (政策 運用 優先 順位) 國家 競爭力은 企業 競爭力이며 이는 行政 規制 緩和를 통해 增進되고, 企業 競爭力은 '사람 競爭力'이며 이의 增大는 教育과 文化의 革新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政策 運用의 優先 順位'를 설정해야 함.

I. 韓國 經濟의 現 位相

- (經濟 動向) 國內 經濟는 景氣 循環上 95년에도 景氣 擴張세가 이어질 전망이 나, 民間소비와 建設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커지는 “景氣 擴張 局面의 後半期”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OECD 對比 現 位相) 韓國 經濟는 光復 이후 高度成長을 지속하여 國內 총생산과 교역량 등 量的인 측면에서는 OECD 회원국들의 中間 國家 그룹군에 근접한 상태임. 그러나 1人當 GDP면에서는 OECD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國際收支 段階上으로는 ‘未成熟 債務國’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先進化 課題) 韓國 經濟의 先進化를 이루기 위해서는 1) 高費用 經濟 體質을 改善하고, 2) 成長 構造의 脆弱性을 補完해야 하며, 3) 經常收支 黑字 基調를 定着시키고, 4) 國民 福祉 水準을 向上시켜야 함.

1. 現 位相

(1) 最近 景氣 局面

- 國內 經濟는 95년에도 94년의 景氣 好況 局面이 지속될 전망임.
 - 그러나 內容面에서 民間소비와 建設투자 등 내수 部門의 성장 기여도가 커지는 ‘景氣 上昇 局面의 後半期’ 特성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경상수지 赤字가 지속되고, 消費者 物價도 높은 오름세를 나타낼 전망임.
 - 특히 95년에는 人力難, 第2 勞總 설립 등으로 높은 임금 상승 압력이 내재되어 있는 데다가, 社會간접자본 확대·지방자치단체장 선거로 不動產 價格이 불안해질 가능성도 커서 物價 不安 양상이 예상보다 심화될 憂慮가 있음.
-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資本 自由化의 진전에 따르는 外資 流入 증대로 ‘通貨 增發 및 換率 切上 壓力’은 더욱 높아질 전망임.

< 國內 經濟의 現황과 전망 >

구 분	1991	1992	1993	1994(P)	1995(E)
경제 성장률(%)	9.1	5.0	5.6	7.9	7.5
설비투자 증가율(%)	12.1	-1.1	0.2	18.0	8.9
건설투자 증가율(%)	17.4	-2.6	5.8	4.2	7.9
수출 증가율(통관 기준, %)	10.5	6.6	7.3	16.1	10.1
경상수지(억 달러)	-87.3	-45.3	3.9	-47.0	-48.0
對美달러 원貨 환율(기말)	760.8	788.4	808.1	788.7	776.0
소비자물가 상승률(%)	9.3	6.2	4.8	5.7	6.2

자료 : 한국은행

주 : 1994년은 한국은행의 잠정치(P)이고 1995년은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전망치(E)임.

(2) OECD와 韓國 經濟

- OECD 회원국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韓國의 GDP와 交易額 규모는 중간 국가 그룹들의 平均 수준을 상회함.
 - 한국의 GDP 규모는 1992년 기준 세계 15위, 交易액 규모는 13위
- 그러나 國民 生活 水準을 나타내는 1인당 GDP는 92년 기준으로 OECD 全體 平均을 크게 하회함.
 - OECD 회원국인 멕시코의 3,728 달러, 터키의 1,924 달러보다는 큼.

< OECD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 경제 >

1992년	OECD(A)	OECD(B)	OECD(C)	한국
GDP 규모(억 달러)	20,255.6	2,442.1	659.2	3,057.0
交易액 규모(억 달러)	5,238.8	1,442.0	412.0	1,584.1
1인당 GDP(달러)	28,101.2	21,870.3	10,563.6	7,007.0

자료 : 한국은행,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994에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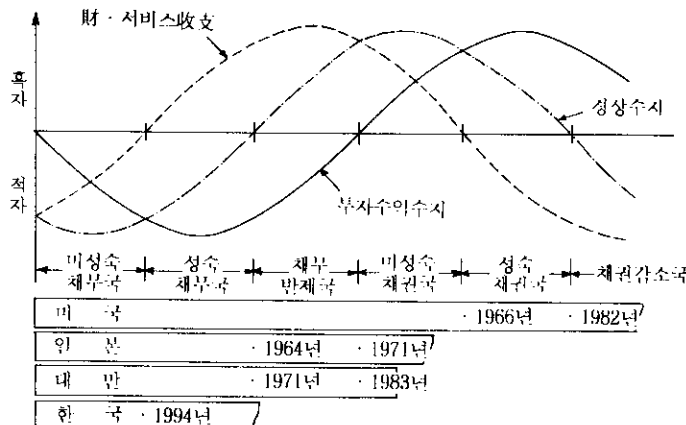
주 : 1) OECD(A), OECD(B), OECD(C) 구분은 OECD 가입국인 25 개국을 항목별 순위대로 각각 8 개국, 8 개국, 9 개국으로 나누어 평균한 값임.

2) GDP 규모 기준으로 (A) 그룹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캐나다 이고 (B) 그룹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호주, 멕시코,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덴마크이며 (C) 그룹 국가는 노르웨이, 포르투갈, 터키, 핀란드, 그리스, 뉴질랜드, 아일랜드, 아이스랜드, 룩셈부르크임.

(3) 國際收支 段階上 韓國 經濟의 位置

- 경상수지의 黒字 基盤이 정착되지 않아 국제수지 발전 단계상으로 볼 때 韓國은

< 국제수지 발전 단계상 한국의 위치 >



자료 : 日本經濟企劃廳, 「世界經濟白書」, 1987에서 재작성

아직까지 '未成熟 債務國'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수지 발전 단계는 미성숙채무국→성숙채무국→債務返濟國→미성숙채권국
→성숙채권국→채권감소국 순서임.
- 日本은 1964년, 대만은 1971년에 債務 返濟國 수준에 돌입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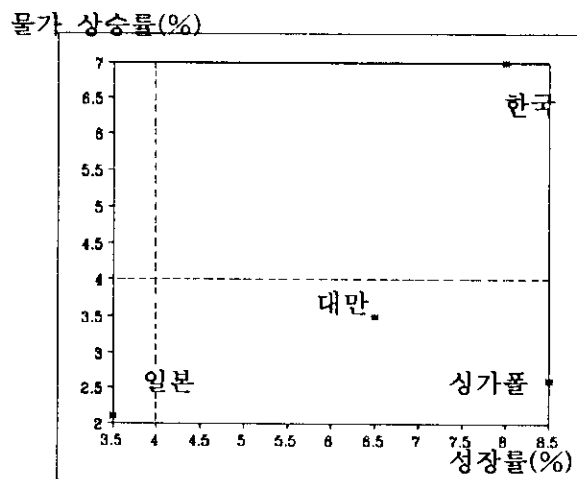
2. 先進 經濟化 課題

- 한국 경제의 構造的 問題點은 1) 高費用 經濟 體質, 2) 成長 構造 脆弱, 3) 對外 去來 構造 不實, 4) 國民 福祉 水準 未洽으로 분석됨.
- 따라서 국내 경제의 先進化 課題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是正하는 데 있음.

(1) 高費用 經濟 體質

- 국내 경제는 競爭國들에 비해 성장에 따르는 물가 상승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高物價 經濟 체제임.

< 성장과 물가의 상관 관계 비교 >



자료 : 한국은행, 「주간해외경제」, 1994. 11. 20.

주 : 88~93년의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평균값임.

- 국내 金利 수준과 賃金 引上率은 경쟁국들보다 높을뿐만 아니라, 92년 기준 제조업 매출액 대비 物流 費用 비중도 15.7%로 선진국의 7~11%보다 2 배 정도 큼.

< 이자율과 임금 인상률 비교 >

	한 국	대 만	싱 가 폴	일 본
이자율(%)	13.7	7.82	5.50	2.28
임금 인상률(%)	14.5	9.5	5.5	2.3

자료 : 한국은행

주 : 이자율은 94년 9월 현재 한국은 회사채 수익률, 대만과 일본은 CD 기준, 싱가폴은 아시안-달러 기준임. 임금 인상률은 91년부터 9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임.

(2) 成長 構造 脆弱

- 중화학공업과 경공업간 성장의 二重 構造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경기의 兩極化 현상이 심하며, 경기 호황 속에도 어음不渡率이 급증하는 경제 성장의 跛行 現狀이 나타남.

<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성장률 차이 >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1~9)
어음부도율	0.04	0.04	0.06	0.12	0.13	0.15
중화학공업(A, %)	6.7	14.0	12.3	7.6	8.6	12.1
경공업(B, %)	0.2	2.3	2.9	-0.3	-3.3	3.3
A-B(% 포인트)	6.5	11.7	9.4	7.9	11.9	8.8

자료 : 한국은행

- 중화학 공업의 中間財 및 部品の 海外 依存度가 높아 성장의 실속이 없음.
 - 핵심 부품 및 중간재의 國産化 정도가 미진하여 이들 제품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국내 산업은 完製品 組立 生産 體制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 핵심 부품 및 중간재 수입 의존형 생산 체제는 新製品 開發을 어렵게 함.

< 제조업의 중간재 수입 의존도 >

	한 국					일 본	
	1980	1985	1987	1988	1990	1980	1987
제조업	22.7	21.7	20.5	19.3	17.8	10.5	4.8
중화학공업	30.2	31.1	25.5	23.4	19.3	11.2	4.6
경공업	15.0	13.2	13.7	13.3	14.4	8.8	5.1

자료 : 산업연구원, 「1990년대 산업 정책 방향과 정부의 역할」, 1993. 2.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1990.

주 : 수입 의존도(%) = (수입중간재투입액/총투입액) × 100

-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비중이 경쟁국들에 비해 작고 脫製造業化 속도가 日本보다 빨라 국가 경제의 基幹 産業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큼.

< 산업구조 비교 >

	한국			대만			일본 (%)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1985	12.5	31.0(29.3)	54.1	7.7	37.0(36.0)	55.4	3.2	29.9(29.6)	66.9
1990	8.7	29.7(29.2)	61.6	4.1	34.8(34.4)	61.1	2.5	29.2(28.9)	68.3
1993	7.1	27.4(27.1)	65.5	3.5	33.4(32.9)	63.3	2.2	28.2(27.9)	69.0

자료 : 한국은행,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994.에서 제작성
 주 : 1993년 중 일본은 1992년 기준임.

(3) 對外 去來 構造 不實

- 수출 증가가 국내 상품의 自體 競爭力 상승보다 新高, 中國의 시장 개방, 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수요 증대와 같은 外部 要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주요 수출 시장인 對美·對日 수출의 총수출에 대한 비중이 축소되고 있으며, 商品別로는 중화학 공업 수출 비중이 늘고 있음.
- 한편 부품 및 중간재의 國產化率이 미흡해서 경기 상승에 따라 資本財 輸入이 급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經常收支 赤字가 누적됨.
 - 특히 자본재의 對日 수입 의존도가 커서 우리나라 外債 총액이 對日 무역적자 누적액이라 할 정도로 對日 무역적자가 韓日 修交 이후 지속적으로 累增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은 外債를 증가시키고 開放化 時代의 정책 대응 능력을 弱화시켜서 일부 南美 국가들처럼 對外 開放 政策을 瓦解시킬 위험을 증대시킴.

< 수출입 구조 추이 >

		1988	1990	1992	1994(1-10)
국별 비중(%)	북미	38.1	32.4	25.7	23.2
	미국	35.3	29.8	23.6	21.7
	유럽	16.3	18.5	15.4	14.1
	아시아	34.7	37.9	42.9	48.0
	일본	19.8	19.4	15.1	14.3
	중국	0.6	0.9	3.5	6.5
상품별 비중(%)	중화학공업	55.3	56.5	62.8	67.8
	경공업	39.1	38.5	33.0	28.3
자본재 수입 비중(%)		36.7	36.5	37.7	39.4
경상수지(억 달러)		141.6	-21.8	-45.3	-45.0
대일 무역수지(억 달러)		-39.2	-59.4	-78.6	-96.7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1994. 11.

- 海外投資도 활발하지 못해 投資收益收支 역시 赤字 狀態를 면치 못하고 있음.

< 무역·경상·투자수익 수지 추이 >

(단위 : 억 달러)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1~10)
무역수지	-10.4	42.1	114.5	-20.0	-21.5	-29.6
경상수지	-13.7	46.2	141.6	-21.8	-45.3	-45.0
투자수익수지	-32.3	-32.1	-20.2	-9.5	-11.4	-12.9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1994. 11.

(4) 國民 福祉 水準 未 洽

- 국민 경제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國民 福祉 水準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경쟁국 수준을 크게 밀돌고 있음.
 - 특히 병상당 인구수가 韓國은 379 명으로 日本의 5 배, 臺灣의 2 배 수준으로 醫療 惠澤 확대가 시급한 과제임.

< 국민 복지 수준 비교 >

	미국	일본	대만	싱가폴	한국
주택 보급률(%)	109.6(90)	111.1(88)	98.9(92)	89.5(85)	72.4(92)
병상당 인구수(명)	171(80)	74(91)	217(83)	247(81)	379(92)
남자 평균 수명	71.9(89)	76.4(91)	71.1(89)	71.3(90)	67.7(91)
승용차 보급률(천명당)	574(90)	283(90)	141(92)	287(90)	79(92)

자료 : 한국은행, 「세계 속의 한국 경제」, 1994.에서 재작성

주 : ()안은 해당 연도임.

II. 經濟 環境 變化

- (經濟 環境) 21 세기까지 남은 5 년 동안 國內外 經濟 環境의 變化 速度와 內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廣範圍할 것임.
- (變化 內容) 世界化·情報化·自由化·地方化·統一 經濟化로 구분할 수 있음.
- (波及 效果) 파급 效果의 주 내용은 '無限 競爭', '創意力 重視', '可變性 增大'임.
 - 世界化로 國境없는 '無限 競爭 時代'가 열림.
 - 情報化로 情報를 가공하고 엮는 '創意力'이 중시되며 '산업의 소프트화'가 촉진됨.
 - 自由化로 국내 경제는 小規模 完全 開放 經濟 體制로 변모하여 경제 변수의 '可變性'이 증대할 것이며, 경제 관련 法·制度·慣行이 先進化되어 나감.
 - 地方化는 '國家 權力·行政 構造 變化'와 함께 '地域間 競爭 深化'라는 새로운 企業 環境을 창출함.
 - 南北韓 經濟 交流 擴大는 統一 經濟와 東北亞 地域 經濟圈의 실현 가능성을 높임.

1. 世界化

- 70년대 후반기부터 세계 경제 활동상 國境이라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음.
 -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세계 수출액보다 다국적 기업의 '汎國家 生産 規模'가 더욱 커지고 있음.

< 국제 생산과 세계 수출의 변화 추이 >

(단위 : 조 달러)

	1982	1984	1987	1989
국제 생산(A)	2.4	2.5	3.5	4.4
세계 수출(B)	1.5	1.4	2.0	2.5
배(A/B)	1.6	1.7	1.7	1.8

자료 : UN, *World Investment Report*, 1992. 서울대경제연구소, 「급변하는 세계와 정책적 대응」, 1994. 9.에서 재인용

주 : 국제 생산이란 다국적 기업의 전세계 해외 자회사의 매출액을 합한 것임.

- 특히 95년 1월 1일부터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세계는 5 년간의 이행 기간이 끝나는 2,000년부터 '國境 없는 하나의 열린 市場'으로 변화할 것임.
- 세계화 시대의 特徵은
 - 첫째, '生産·販賣·競爭의 世界化(Globalization of Production, Marketing, Competition)' 현상이 가속화됨. 세계 경제는 '國境없는 世界'로 진전되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縮小·緩和되고 농산물·투자·서비스의 自由化가 이루어짐.
 - 둘째, 절대적으로 競爭力이 있는 企業만이 세계 시장을 차지하게 될 것임. 지난 200 년간 국제 무역의 기본 개념이었던 比較優位論이 퇴색하고 絕對優位論이 지배하게 됨.

- 셋째, 企業 經濟(Enterprise Economics)의 활동 영역과 중요성이 크게 증대함. 幼稚産業保護論이나 특정 산업 지원의 명분이 퇴색하여 政府 役割이 크게 축소되는 반면 企業과 消費者가 경제 활동의 핵심 주체가 됨.

2. 情報化

- 세계는 과거 르네상스나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情報 革命'을 통해 情報化 時代(Information Age)·知識社會(Knowledge Society)·超産業化社會(Super-industrial Society)로 전환되고 있음.
 - 情報化로 知識의 綜合化가 촉진되어 첨단 기술 분야가 급속히 발전하고, 時間과 空間의 縮小가 이루어져 인류의 生活 方式·消費 形態·生産 方式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됨.
 - 따라서 情報를 가공하고 엮는 인간의 '知力'과 '創意力'이 가장 중요한 生産要素가 됨.

3. 自由化

- 自由化는 넓은 의미로 경제 활동에 있어서 政府의 책임이 '民間으로 移讓되는 측면(行政 規制 緩和)', '地方 政府로 移讓되는 측면(地方化)', '世界 經濟 規範으로 移行되는 측면(世界化)'으로 나눌 수 있음.
- 국내 경제는 80년대부터 自由化 措置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90년대에는 國內 金融 市場의 自由化 조치가 完結될 전망이다.
 - 政府 計劃대로라면 97년에는 국내 금리 결정은 모두 自律化되며 국내 자본 시장 역시 完全 開放되게 됨.
- 금융 시장의 자유화는 국내 경제를 小規模 完全 開放 經濟 體制로 전환시킬 것임.
 - 이에 따라 국내 경제 변수들의 세계 경제와의 連繫性이 증대되고 變動性은 더욱 커질 것임.

4. 地方化

- 세계 경제에서 世界化(globalization)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地方이 경제 활동의 중심이 되는 이른바 地方化(localization) 현상임.
 - 世界化와 地方化가 동시에 진행되는 'glocalization 時代'가 到來하고 있는 것임.
- 우리나라도 95년부터 본격적인 地方自治制를 실시함으로써 각 지역간 자체적인 成長 戰略을 추구하는 새로운 經濟 環境에 놓이게 됨.

- 지방화 시대의 經濟的 意義는
 - 첫째, 競爭이 深化됨. 개방과 국제화에 의한 '對外 競爭'과 지방 자치에 의한 '地域間 競爭'이 동시에 進行함.
 - 둘째, 국가의 權力·行政 構造가 변모함.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上下 關係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權限과 책임을 분담하는 同伴者 關係로 변함.
 - 셋째, 경제 정책의 透明性和 一貫性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음. 政策 樹立 段階가 짧아지고 정책 결정과 집행간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가까워질뿐만 아니라 政策의 成敗가 주민에게 그대로 비춰지고 選舉를 통하여 평가되므로, 지방 정부는 정책 결정을 透明하고 一貫性있게 추진하려 할 것임.

5. 統一 經濟化

- 南北 經濟 交流는 92년 北韓의 국제원자력기구 탈퇴 선언 이후 한때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냈으나, 北核 문제 타결·남북 경제 활성화 조치 발표에 따라 94년에 들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 특히, 委託 加工 貿易은 91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94년 11월말 현재 위탁 가공 교역 승인 실적은 完製品 승인 기준으로 90 건, 16 개 품목, 1,486만 달러로서 전년 동기 대비 4.2 배 증가하였으며 93년 전체 실적에 비해서도 3.4 배 증가하였음.
 - 최근 몇 년간의 南北韓 交易 실적은 2 억 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北韓의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南韓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음.
- 南北韓 경제 교류 활성화는 北韓의 變化和 남북한 緊張 緩和에 도움을 줄 것임.
 - 北韓의 경제 관련 법·제도·관행의 점진적인 변화가 유도됨.
 - 北韓의 對南韓 公營 의존도가 커질수록 경제적 相互 依存性이 제고되어 정치 관계의 硬化를 제어할 수 있는 安全 裝置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統一 經濟와 東北亞 地域 經濟圈의 실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韓半島 經濟圈의 중요성과 위상이 드높아질 것임.

< 북한의 교역액에 대한 남한의 비중 추이 >

(단위 : 100만 달러)

	수출	수입	총계	남한의 비중
1991	986	1,655	2,641	4.2%
1992	1,023	1,667	2,690	6.5%
1993	938	1,539	2,477	7.5%

자료 : 통일원

III. 새로운 政策 方向

- (政策 焦點) 향후 몇 년간은 새로운 世界 經濟 秩序와 競爭 構造 變化에 적응하면서 先進 經濟圈으로 進入하고 統一 經濟의 礎石을 놓아야 하는 시기임.
- 특히 95년은 '世界化 時代의 元年'으로서 新 政策 理念과 政策 目標(Vision)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政策 手段을 개발하는 첫 해가 되어야 함.
- (新 政策 理念) 새로운 政策 理念은 맹목적으로 外形 成長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國民의 정신적·물질적 삶을 豊饒롭게 하는 "新人本主義"여야 함.
- (政策 目標) 新 政策 目標는 '先進 經濟' 社會를 달성하여 96년 OECD 加入과 2,000년대 先進 經濟圈 進入을 순조롭게 이루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 政府 役割이 재조정되고, 2) 경제 주체들의 意識이 革新되어야 함.
- (政策 課題) 현재의 景氣 好況 局面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政策 目標를 실현하기 위한 中短期 政策 課題는 1) 經濟 安定 體質의 定着, 2) 成長 潛在力 擴充, 3) 國民 福祉 向上, 4) 統一 經濟 基盤의 確立임.

1. 新 經濟 政策 理念과 目標

- 우리 경제가 새로운 經濟 跳躍을 이루기 위해서는 經濟·社會 분위기를 一新하고 國力을 結集할 수 있는 新 政策 理念이 설정되고 새로운 政策 目標(Vision)가 提示되어야 함.
- 세계화가 政治的 名分과 口號 次元에 머물고 이에 대한 對應이 總論的이고 臨機應變的일 때 한국 경제의 장래는 매우 不透明하게 될 것임.

(1) 新 政策 理念

- 新 經濟 政策 理念은 人間性 회복을 바탕으로 人間 生活의 정신적·물질적 品요를 추구하고 人間の 創意性을 존중하는 "新人本主義"가 되어야 함¹⁾.
-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은 盲目的인 高度成長만을 추구해 옴으로써 경제 성장에 相應하는 政治·사회·문화의 발전이 뒤따르지 못하였고, 경제 주체들의 경제 活力을 극대화할 수 있는 精神的 指向 價値가 정립되지 못하였음. 이로인해 道德性 결여 등 경제 社會의 病理 現狀이 노정되어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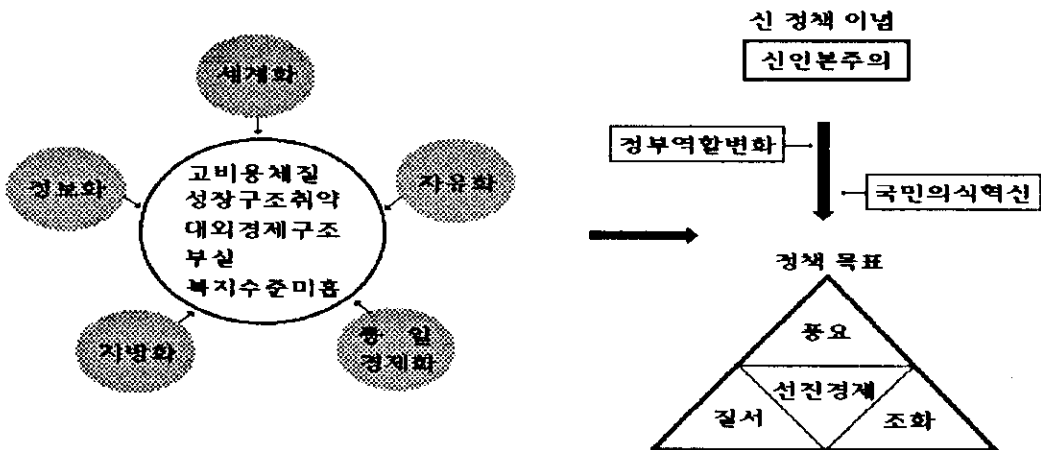
1) 19세기 르네상스 시대의 神本主義에 대응한 人本主義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新人本主義라 함. (金重雄, "國際化的 歷史的 意義와 接近 戰略", 「계간 신용카드」, 1994. 9. 참조)

- 초기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貧困으로부터의 解放을 위해 인간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物質的인 하드 웨어 창출이 가장 중요한 政策 目標가 됨. 따라서 경제의 效率性이나 能率性을 제고시킨다는 名分 아래 때로는 인간 본래의 自由를 制約하는 것이 容認될 수 있었음. 그러나 경제가 발전하여 인간의 基本 慾求가 대체로 충족되면 物質적 기본 수요의 多樣한 慾求가 噴出되고 인간다운 생활의 추구가 上位 價値 基準으로 등장하게 됨.
 - 또한 21세기 情報化 사회에서는 창조적 專門 知識人이나 전문가 집단의 휴먼 웨어가 가장 중요한 生産 要素로 간주됨. 이에 따라 인간 본래의 創意性 개발을 우선시해야 하는데 이는 “新人本主義”가 존중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됨.
- “新人本主義” 理念의 特徵은
- 인간의 尊嚴性과 價値를 최대한 존중·중시하는 ‘사람 중심의 정책 이념’으로서, 物量的·絶對的 가치보다는 質的·相對的 가치를 존중하며 成長 果實의 크기와 目標 뿐만 아니라 分配의 衡平和 정책 결정 과정의 民主化도 중요시하는 것임.
 - 또한 新人本主義는 ‘世界化 時代’와 ‘統一 經濟 時代’에 걸맞게 世界人과 韓民族의 共同 利益을 추구함.

< 환경 변화에 따르는 새로운 경제 정책 이념과 목표 >

(선진 경제화 과제와 환경 변화)

(신 경제 정책 이념과 목표)



(2) 新 經濟 政策 目標(New Vision)

- 新 經濟 政策 目標은 '先進 經濟' 社會를 達成하여 96년 OECD 加入과 2,000년대 上位 先進 經濟圈 進入을 순조롭게 이루는 것임.
 - 先進 經濟는 物的·精神的 '풍요로움'을 추구함. 成長 潛在力의 확충을 통해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經濟 成長을 이루어 나감.
 - 先進 經濟는 '社會 秩序'를 尊重하며 '相互 信賴'하는 社會임. 개방화되고 자율화되는 經濟 體制(시스템)가 경제 주체들의 相互 信賴感 속에서 원활히 기능함.
 - 先進 經濟는 '조화로움'을 추구함. 지역간·계층간·부문간의 '均衡的이며 調和로운' 發展을 추구하여 경제 성장의 副作用을 최소화하고 福祉 水準을 향상시킴.

2. 目標 成就를 위한 前提條件

- 新 政策 理念과 目標가 순조롭게 達成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政府 役割이 變革되고 經濟 主體의 意識이 革新되어야 함.
 - 단순한 政策 手段의 變化에 앞서 政策 主體의 改革이 先行되어야 함.

(1) 政府 役割의 再定立

- 새로운 경제 環境하에서는 政府 役割이 根本적으로 變革되어야 함.
 - 開發 時代에는 政府가 한정된 資金과 人力 資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었으나, 새로운 시대에서는 '資源의 世界化'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統制·管理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政府 役割은 이전의 직접적인 管理와 統制者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주는 奉仕者로서 변모해야 함.
- 특히 政府는 國民들에게 최상의 公共 서비스를, 企業에게는 최상의 企業 環境을 提供하겠다는 과감한 意識과 行態의 전환이 요구됨.
 - 따라서 政府 役割은 경제 내에 '公正한 競爭 規則'을 정립하고, 기술 및 인력 개발, 社會간접자본 및 環境 보호 투자 등 企業의 競爭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經濟 基盤을 튼튼히 하는 데에 重點을 두어야 함.
- 이러한 役割의 성공적 수행은 政府가 專門的인 經營과 행정 服務 體制를 갖추어 生産性을 최대한 향상시킬 때 가능함.
 - 이를 위해서는 公務員이 少數 精銳化되어 社會적 地位와 名譽가 확립되고 生活 保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行政 改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國民 意識의 革新

- 경제 주체들의 意識도 先進 資本主義 體制에 걸맞게 革新되어야 함.
 - 世界人으로서의 '認識' 전환
 - 기본적인 법과 질서를 遵守하는 '法秩序 遵守 風土' 형성
 - 個人의 創意와 努力을 중시하는 '能力 本位 社會' 형성
 - 成長 潛在力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健全한 消費 文化' 정착
 - 製造業을 중시하고 富의 건전한 蓄積을 존중하는 '淸富 精神' 확립
 - 公共福利에 중요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集團 利己主義' 추방
 - 금융 거래를 資本 利殖 手段으로만 인식하는 '賤民資本主義 意識'과 경기 호황기를 틈타 不動產 投機 등으로 富를 축적하려는 '猝富 意識' 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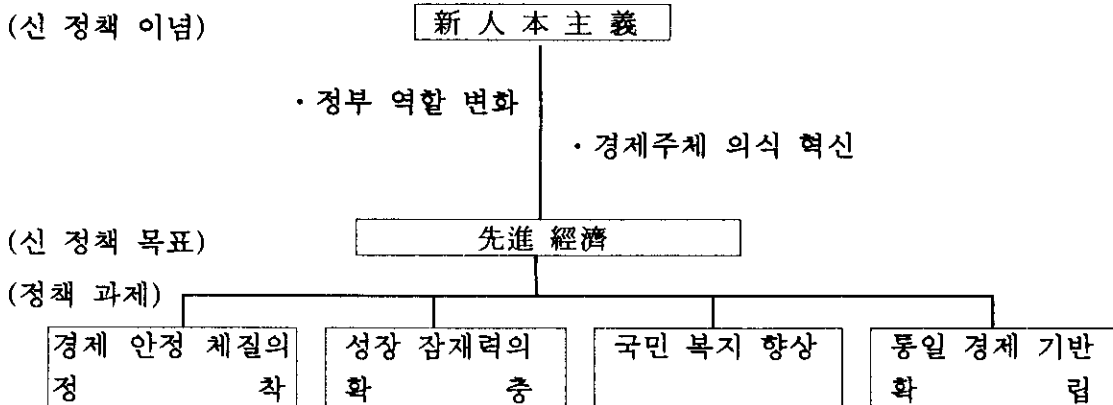
< 정부 역할과 경제 주체들의 의식 변화 방향 >

	지금까지의 역할과 의식	미래 변화 방향
정 부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 성장 주도 · 직접적인 관리와 통제 · 계획과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성장 후원 · 간접적인 지원과 봉사 · 경쟁 규칙 설정과 감시
경제주체 의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수주의적 경향 · 기본 질서와 법 경시 · 허례허식, 모방적 소비 문화 · 혈연, 학연 위주의 청탁 사회 · 富의 축적을 무조건 경시 · 집단이기주의 팽배 · 천민자본주의와 졸부의식 성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으로서의 자각 · 법질서 존중 풍토 형성 · 합리적 소비 문화 정착 · 능력 분위 사회 형성 · 淸富 정신 확립 · 상호 이해·협력 문화 조성 · 선진 산업자본주의 의식 투철

3. 政策 課題와 方向

- 최근의 景氣 好況期를 지속시키면서 새로운 經濟 政策 目標을 달성하기 위한 中短期 政策 課題는 1) 經濟 安定 體質 定着, 2) 成長 潛在力 擴充, 3) 國民 福祉 向上, 4) 統一 經濟 基盤 確立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새로운 政策 목표(New Vision)와 과제 >



(1) 經濟 安定 體質 定着

- (重要性) 신 경제 정책의 목표 달성은 '經濟 安定 體質의 定着'에서부터 비롯됨.
 - 경제 안정은 對外 競爭力 향상 및 對外 開放에 따르는 衝擊 緩和의 기본 요소임.
- (物價 安定) 이를 위해서 물가 안정은 단순 通貨 管理에 의한 指數 調整 政策에서 벗어나 高費用 經濟 體制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政策의 焦點을 맞추어야 함.
- (勞使 安定) 勞使 關係 安定을 통한 國民 和合·協力 분위기 조성

정책 분야	정책 방향
물가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社會間接資本 확충으로 物流 費用 감소 · 流通 産業의 효율화로 流通 費用 절감(流通業에 대한 토지 이용과 稅制·금융상의 과도한 規制를 緩和) · 기업간 競爭 促進을 통한 商品價 下落 유도 · 不動產 投機의 拔本塞源(土地實名制의 차질없는 추진)
노사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발전의 기본 전략을 「人間化 中心」으로 전환 유도 · 근로자의 「프로 精神」을 심어 주는 프로그램의 개발 · 기업 내의 自律 勞務 管理 體制 구축과 근로 환경 개선 · 노동위원회의 中立性和 專門性 확보

(2) 成長 潛在力 擴充

- (基本 方向) 成長 潛在力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첫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新 産業·通商·金融財政 政策이 수립되어야 하고 둘째, 資源의 효율적 활용이 이루어 지도록 制度 改善이 이루어져야 하며 셋째, 국내 경제의 脆弱 部門을 補完해야 함.

1) 新 産業 · 貿易通商 · 金融財政 政策 樹立

- (産業 政策) 세계화 시대에서는 국제 시장에서는 물론 국내 시장에서도 絶對的인 競爭力이 있는 企業과 産業만 살아 남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新 産業 政策이 수립
- (貿易 政策) 부존 자원이 부족한 小規模 開放 經濟 體制인 한국 경제는 국제수지의 흑자 기반이 정착되어야 政策 運用의 獨自性을 확립하고 세계 경제 변화에 能動的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음.

정책 분야	정책 방향
산업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未來 産業에 대한 中長期 비전을 제시, 新 産業 政策에 반영 · 산업 · 무역 · 투자 부문에서 競爭 與件 조성 촉진 · 세계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生存할 수 있는 방향에서 政治 論理를 떠난 合理的이고 명확한 신 산업 정책 수립 · 기존 산업 지원 정책의 整備와 先進化
무역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산업의 과도한 輸入 誘發 構造를 시정하기 위한 部品 및 中間財 산업 집중 육성 · 경공업 및 중소기업의 高價 少量 多品種 戰略 商品 개발 지원 · 對日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相互補完的인 韓日 産業 協力 추진
통상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아 및 북방 중심의 통상 전략에서 美國과 日本, 유럽 등 先進國 수출 시장 위주의 통상 전략으로 再轉換 · APEC에서의 指導力 발휘, EU · NAFTA 등과의 協力 強化, 後進國 개발 지원 등 세계 속에서 우리 경제의 役割과 位相 제고 · 環境, 勞動, 競爭 政策, 技術 등 새로운 通商 懸案에 대한 대책 수립 · 貿易委員會 기능 확대로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 제도 활성화
금융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화 관리는 정부의 직접 관리에서 金利 中心의 間接 管理로 전환 · 金融通貨委員會에서 民間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및 정책 결정 과정 改善 · 金利 自由化와 함께 은행 경영과 여신 관리의 自律性 보장 · 신용평가기관과 보증전담기관을 적극 육성 信用 貸出 制度 확립 · 정책 금융 기관의 民營化와 금융 기관간의 실질적인 競爭 유도 · 資本 流通 市場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 · 資本 自由化 및 外換 自由化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 · 기업의 對外 活動과 관련한 규제의 조속한 완화 · 外換平衡基金 확충으로 원貨 환율의 안정적 운용
재정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 개혁 및 공기업 민영화 추진으로 정부의 硬直性 經費 축소 · 財政의 경기 조절 기능 강화 · 정확한 投資 分析을 통한 中長期 大型投資事業의 優先 順位 설정 · 特別 會計 제도의 정비

- (通商 政策) WTO 時代에 대비한 通商 外交 政策으로 轉換
- (金融 政策) 기업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한 금융 정책의 효율화 추진
 - 先進 經濟로의 진입 여부는 향후 금융 시장의 效率性이 제고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정도로 金融 市場의 效率化는 성장 잠재력 제고의 關鍵이라고 할 수 있음.
- (財政 政策) 재정 규모의 縮小보다는 적극적으로 財政 投資를 추진하되 재정 지출의 經濟性을 향상시키는 데 재정 운용의 重點이 두어져야 함.

2) 世界化와 地方化에 對應한 制度 改善

- (行政 規制 緩和) 節次 簡素化 등 形式的인 규제 완화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 진입과 같은 核心的이고 實質的인 정책 규제 완화로 확대
- (教育 制度 改革) 學閥 위주에서 專門性 위주로 교육 체계 혁신
- (地方 經濟의 活性化) 지방자치체에 自律性 발휘에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移讓

정책 분야	정책 방향
행정규제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 관료의 意識 改革과 지속적인 行政 改革 선행 · 가격·물량 결정, 사업 진입에 대한 규제 등 市場 自律을 저해하는 행정 규제를 원칙적으로 廢止 · 규제 기관 조직 축소 및 관련 法令 整備 · 규제 방식을 사전 규제보다는 事後 弊害 규제 방식으로 전환
교육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帝부터 유래된 초중고등 교육 과정의 과감한 개편 · 대학별 特化와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의 平生教育機關化
지방경제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住民 福祉, 토지 이용, 지역 경제 개발, 교통 분야에서 국가 행정 기능의 지방 이양 · 지역별 새로운 自體 稅源을 발굴할 수 있도록 地方稅法 개정 · 彈力 稅制의 적용 확대 · 지방에서의 기업 활동 規制 완화 · 市道經濟協議會 운영 등 중앙 정부와 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協議 채널 구축 · 지역 경제의 國際化 추진

3) 脆弱 部門 補完

- (中小企業의 活性化) 중소기업을 주요 산업의 核心 部品 및 中間財를 생산하는 생산 센터로 육성하여 경제 하부 구조를 튼튼히 다지고 富의 衡平性을 제고

- 基本 方向은 모든 중소기업에 대한 평균적 金錢 支援보다는 유망 기업이 自活 할 수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임.
- (農漁村의 近代化) 食糧 資源의 自立性 확보라는 차원에서 農漁業의 競爭力을 제고시켜야 함.

정책 분야	정책 방향
중소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協助的 계열화 추진(기술 지원, 인적 교류 확대) · 우량 및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信用 貸出 제도 증대(冒險 資本 (venture capital) 제도 적극 활용) · 중소기업 상품의 독자적인 流通網 형성 구축 및 지원
농어촌 근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가격의 直接 補助가 아닌 농업 활동 장려 차원의 間接 支援 방식으로 농어민 지원 방식 개선 · 농어촌의 生産 品目 特化· 生産 體系 改善· 流通 構造 革新을 유도

(3) 國民 福祉 向上

- 그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온 國民 生活의 기본적인 安全과 生活 與件의 질적 향상에 힘을 쏟음.

정책 분야	정책 방향
국민 복지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래의 生産者 중심에서 消費者 중심으로 政策 發想 전환 · 安全 事故 예방 체계 강화 · 農漁村의 의료 시설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 혜택 확대 · 國民 年金 등 연금 사업의 效率化 및 收益性 제고 · 環境 文化 형성과 환경 투자 확대
통일 경제 기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情報 제공의 확대 · 搬出入 승인 절차 및 通關 節次의 간소화 · 過當 競爭을 방지하기 위한 민간 자율 협력 기구 설립

(4) 統一 經濟 基盤 確立

- 南北韓 경제 관계는 短期的으로는 民族 共同體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中長期的으로는 投資 收益性 및 相互 利益 增大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함.
- 對北 접촉은 정부보다는 民間 企業이 보다 효과적이므로 민간 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制度 改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IV. 結言

- (政府의 政策 運用 方式 改善) 政策 課題를 성공적으로 遂行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政策 運用 方法도 發想의 轉換이 이루어져야 함.
- 中長期的으로 국민 經濟의 先進化 달성을 위한 基盤 造成 方法에 대한 經濟主體間에 共感帶를 형성해야 함.
 - 國家 競爭力은 '企業' 競爭力이라는 차원에서 政府의 規制 緩和를 이루고
 - 企業 競爭力은 '사람' 競爭力이며 사람 경쟁력은 敎育과 文化의 先進化로부터 비롯된다는 차원에서 敎育과 文化의 전반적인 革新이 이루어져야 함.
- 政府는 단순히 '작은 政府'보다는 '작고 效率的'이며 '強力한' 政府가 되어야 함.
- 景氣 調節 政策을 1~2년 단위로 運營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새로운 각오) OECD 가입을 對外 誇示用으로 보다는 經濟主體들의 自覺과 국민 經濟의 內實化를 통해 달성하겠다는 政府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함.

- 韓國 經濟의 現 位相을 살펴볼 때 先進國 수준과는 여러 측면에서 거리가 있음.
 - 따라서 短期的인 景氣 對策을 크게 毀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經濟 構造 改善을 통해 國民 經濟를 先進化시키는 방안을 하루속히 도출하고 이를 國民的 共感帶 위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새로운 政策 理念과 이에 따르는 政策 課題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96년 OECD에 무리없이 加入하기 위해서는 政府의 政策 運用에서 發想의 轉換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 政策 樹立에 있어서 中長期的으로 국민 經濟의 先進化를 달성하기 위한 基盤 造成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해 經濟主體間에 共感帶를 이루어야 함.
 - 國家 競爭力은 곧 '企業' 競爭力이라는 차원에서 기업 활동을 왕성하게 해주기 위해 政府의 規制 緩和가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企業 競爭力은 곧 '사람' 競爭力이며 사람 경쟁력은 敎育과 文化의 先進化로부터 비롯된다는 차원에서 敎育과 文化의 전반적인 革新이 이루어져야 함.
 - 둘째, 政府는 단순히 '작은 政府'를 지향하는게 아니라 '작고 效率的'이며 '強力한' 政府가 되어야 함.
 - 政府의 기능에는 政策 開發 機能과 시장 실패를 예방하기 위한 行政 規制 機能 등이 있겠는데 민주화와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中央 政府는 政策 開發 機能에 역점을 두어 나가고 여타 기능은 地方 政府에 이양하거나 民間 自律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 함.

- WTO 출범과 더불어 世界化가 진전되는데 이에 따라 빚어지는 外國의 影響力을 中央 政府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고 地方 政府 차원에서 소화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 정부의 對外 交渉力을 신장시키는 길임. 이를 감안하여 지방 정부가 世界化의 尖兵 役割을 할 수 있게 중앙 정부의 기능이 지방으로 과감히 移讓 되어야 함.
- 셋째, 短期的인 경기 조절 정책과 中長期的인 경제 구조 개선 정책을 조화시키기는 쉽지 않으므로 景氣 對策을 가급적으로 1~2년 단위로 運營하려는 자세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특히 輿論 指導層과 言論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봄.
- 2차 대전 이후 開途國에서 先進國으로 진입한 나라는 日本밖에 없으며 日本도 前戰 經濟力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함.
 - 이처럼 先進國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만큼 經濟主體들이 치루어야 할 對價가 적지 않음을 인식해야 함.
 - 정부가 OECD 가입을 對外 誇示用으로보다는 經濟主體들의 自覺과 국민 경제의 內實化를 통해서 달성해야겠다는 입장을 더욱 強化해야 함.